

## 블레셋 도시-에그론

여호수아 13:3은 남쪽 지중해변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발굴을 통해서도 이 지역의 토기라든가 식습관 등 예계문명의 성격을 띤 문화를 공유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었고 점차 독특한 성격을 잃어갔다. 이 도시들 중에서 에그론은 블레셋과 남왕국 유다의 국가 경계선에 위치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정치, 경제에 있어 상당히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삿 1:18; 삼상 7:14). 특별히 이곳에서 발견된 “아기스 신전 헌정비”는 성경과 성경 외 자료의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어 성경의 배경지식에서 중요한 유물이 되고 있다.

에그론은 여러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그 위치가 제시되었지만 1957-1958년 히브리대학교 나베 교수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5km 떨어진 현재 텔 미크네라고 추측했다. 히브리대학교의 도단 교수와 올브라이트 고고학 연구소 소장 기턴은 1981년부터 15년간 텔 미크네를 발굴하였고 이곳이 블레셋의 에그론이라고 굳게 믿었다. 유물들과 유적지 전반에 걸쳐 이곳이 블레셋의 문화를 가지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어디에도 이 도시의 지명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유물은 없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유적지들 중에는 아직도 성경 속의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장소들이 있어 지명을 밝혀 줄 수 있는 유물의 발견이 절실하다. 오랜 기간 동안의 발굴은 에그론 발굴 팀에게 더욱 절실함을 안겨주었고 기적은 마지막 시즌에 일어났다.

1994-1996년 텔 미크네의 D구역에서는 주전 8-7세기경 사용되었던 거대한 신전을 발굴하고 있었다. 바로 이전 시기의 텔 미크네는 4만 평방미터의 소규모 도시였다. 그러나 8세기 말 앗수르의 사르곤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 도시는 오히려 35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도시로 변했다. 도시를 확장하고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올리브유 생산이 주 사업이 된 덕분이었다. 에그론은 동시대 근동지역에서 가장 큰 올리브유 생산지로 도시 전반에 걸쳐 올리브유 압착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돌로 만든 추들이 발견되었다. 에그론에서는 100여개의 올리브유 압착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간 1,000톤 이상의 기름을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생산된 올리브유는 가나안 땅은 물론 이집트와 앗수르 그리고 고대 근동 전역으로 수출되었다.

신전은 이 올리브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건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형태는 앗수르의 신전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동시대의 가나안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다. 건물은 정면과 측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가 있었으며 각각 돌 하나로 만든 4m 길이의 문지방이 놓여 있다. 신전에서는 앗수르의 제사용 용기를 비롯하여 수백 개의 깨지지 않은 그릇들이 발견되었다. 앗수르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집트의 영향이 드러나는 유물들도 발견되었다. 여왕의 모습으로 조각된 상아에는 이집트의 왕 메르넵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3m 길이의 금으로 만든 이집트의 우라에우스(코브라)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렘 42:14-19; 겔 17:11-24) 에그론을 비롯한 주변 지역들이 주전 7세기 말 이집트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유물의 예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 신전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가장 중요한 유물은 1996년 발견된 “아기스 신전 헌정비”이다. 이 석비는 현재 기원전 7세기 중반으로 연대가 측정되고 있으며 5열로 글이 쓰여져 있다. 석비의 내용은 여신 Ptgyh가 왕 아기스와 그의 땅을 축복하여 주기를 비는 신전 헌

정비이다. 이 석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첫 번째로 아기스는 그 스스로를 파디의 아들, 이스드의 아들, 아다의 아들, 야이르의 아들, 에그론의 통치자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텔 미크네가 에그론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발굴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마치 마지막 시즌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에그론의 이름이 밝혀진 것이다. 두 번째로 성경과 성경 외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견이다.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갔을 때 가드 왕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 신전이 다윗 시대보다 적어도 250년은 후대의 건물이기에 석비를 세운 아기스를 같은 인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기스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아닌 블레셋의 이름이기에 에그론에 주전 7세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전통적인 이름을 고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비의 주인 아기스와 그의 아버지 파디는 동시대 앗수르의 기록들에도 등장하고 있어 이들의 역사성이 보다 증명되었다. 아버지 파디의 경우, 열왕기하 18:8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앗수르의 왕 산헤립(주전 705-701년)의 연대기에는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대항하기 위한 연맹에 가담하지 않은 에그론의 왕 파디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기스는 앗수르 이름으로는 일카수라 불리는 인물로 앗수르의 왕 에살하돈(주전 680-669년)의 궁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제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석비에서 아기스는 스스로를 왕이 아닌 “sar(사르)” 즉 통치자로 부르고 있어 에그론이 당시 독립국이 아닌 작은 속국에 불과함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에그론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여신이 숭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된 여신의 이름은 Ptgyh로 가나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으로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의 기원을 인도 유럽 어족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블레셋의 고향인 에게문명의 여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신전의 크기를 가늠해 볼 때 이 여신이 에그론에서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열왕기하 1:2-16에서 에그론에서 숭배된 바알세뽀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

비록 앗수르의 속국이었고 남왕국 유다와의 경계선에 있어 영토전쟁에 시달렸지만 주전 8-7세기 에그론은 올리브유 생산으로 생긴 부로 도시를 확장하고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